

제 목	국 문	사무직 채용 신검에 있어서 간기능검사에 대한 고찰		
	영 문	An analysis of liver function test of preemployment screening for office workers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신연교·이용진·안재역·우극현·김주자·이병국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Yeon Gyo Shin, Yong Jin Lee, Jae Eog Ahn, Kuck Hyeun Woo, Joo Ja Kim, Byung Kook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Soonchunhyang University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신 연 교(전공의)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√), 연구중 (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본 연구는 회사입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30세 미만 무증상자를 대상으로, 간기능검사의 분포와 이상수준에 대하여 남녀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, 향후 무증상 젊은 여자에 있어서 간기능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일개 대학병원 건강관리과에서 사무직으로서 직장채용을 목적으로 1994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채용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17-29세 사이의 연령군 8,184명(여자 2,633명, 남자 5,551명)을 대상으로 SGOT, SGPT를 실시하여 평균치와 실험실 참고치 및 노동부 고시에 의한 관리한계를 기준으로한 이상률을 비교검토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1) 연령별, 성별에 따른 간기능검사의 항목별 평균값은 SGPT의 경우 여자 9.1 ± 7.6 (IU/L), 남자 21.0 ± 27.9 (IU/L)이었으며, SGOT의 경우 여자 15.1 ± 6.0 (IU/L), 남자 20.5 ± 26.5 (IU/L)로 각각 남녀간의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($p < 0.01$), 연령에 따른 평균치의 분포는 SGPT는 남자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($p < 0.05$), SGOT는 여자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($p < 0.01$).

2) 각 기준치에 따른 간기능검사의 이상율로는, 검사실 참고치를 기준으로 정할 때 전체 8.6% (705/8,184), 여자 0.7% (19/2,633), 남자 12.4% (686/5,551)로 1:17.7의 비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었다($p < 0.01$). 노동부 고시에 의한 관리한계로 기준치를 정할 때의 간기능 이상율은 전체 4.6% (372/8,184), 여자 0.4% (11/2,633), 남자 6.5% (361/5,551)로 1:16.3의 비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었다($p < 0.01$).

3) 성별에 따른 간기능검사의 항목별 이상율은 SGPT의 경우 여자 0.4%(11/2,633), 남자 6.3% (352/5,551), SGOT의 경우 여자 0.2%(5/2,633), 남자 1.2% (69/5,551) 이었으며 남녀간에 모두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었다($p < 0.01$). 연령 증가에 따른 간기능 이상율은 남자의 경우 SGPT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($p < 0.01$).

4. 고찰

이상에서 볼 때 17-29세 연령군의 여자에서의 간기능 이상율은 매우 낮으므로 무증상의 젊은 여성군에 있어서 입사 또는 현재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과 효력의 면에서 대상연령 및 빈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